예수께로 나아오는 무리들

말씀 시리즈: 마가복음 강해 16
본문: 마가복음 3:7-12

| 서론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갈등과 확장이 동시에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앞서 살핀 갈릴리에서의 다섯 번의 논쟁(막 2장 후반~3:6)은 죄 사함, 안식일, 금식 문제 등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장면들이었지만,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완악해져 결국 예수를 제거하려는 음모에까지 이르게 된다. 인간의 완고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흐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과 대립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신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사역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확장된다. 본문은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시니…"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며,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열매 없는 논쟁의 자리에서 벗어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시는 전략적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의 이동과 함께, 그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준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온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제한되지 않고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 무리는 아직 온전한 제자라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반응하는 군중의 모습도 함께 드러낸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본질을 보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따라서 혼란과 저항, 그리고 다양한 인간의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 본문은 무질서와 소란이 뒤엉킨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며 사역을 이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혼란과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나는 완악함과 논쟁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별하는 자에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휩쓸리는 군중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로 서야 한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참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

| 본론: 본문 주해1

Mark 3: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Mark 3:8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1. 물러가심: 좌절이 아닌 전략적 전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는 말로 시작된다. 이 표현만 보면 마치 종교지도자들의 위협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거나 좌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문맥상 이는 결코 패배나 도피가 아니다. 앞선 본문(막 3:1-6)에서 예수께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열매 없는 논쟁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신다.**

이제 예수께서는 종교 권력의 중심지인 '회당'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인 '바다'로** 나아가신다. 이는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사역의 확장이며,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대상의 전환이다. 특히 "물러가셨다"는 표현이 가지는 뉘앙스를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전략적 후퇴로 이해할 수 있다.[1] 예수께서는 귀를 닫은 자들에게 계속 매이기보다, 말씀을 듣고 반응할 준비가 된 자들에게로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이 움직임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열매를 위한 방향 전환이며,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도권이 결코 대적자들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1] "물러가시니"(헬. ἀνεχώρησεν/ 아네코레센)은 단순히 두려워 도망하거나 패배하여 후퇴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의도적 이동, 전략적 철수의 뉘앙스를 지닌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종종 위협이나 갈등 속에서 사역의 방향을 조정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사용되며(마 2:14, 4:12 등),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계획적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의 "물러가심"은 대적자들로 인한 좌절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을 확장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도적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사방에서 모여드는 무리: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이어지는 7절 하반절과 8절은 예수께 나아오는 무리들의 범위를 상세하게 기록한다. **갈릴리를 시작으로,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매, 요단 강 건너편(베뢰아),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2] 이는 단순한 인파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역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제한되지 않고, 점점 더 넓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특히 이 흐름은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교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미쳤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 경계를 넘어 **더 광범위하게** 퍼져 나간다. 이는 "자기보다 더 크신 이가 오신다"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 무리 안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지역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두로와 시돈, 요단 동편 지역은 대표적인 이방 지역으로,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민족적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바닷가에 모인 이 무리는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인 **새로운 공동체**의 전조라 할 수 있다.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기존의 혈통, 전통,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임을 암시한다. 이것은 더 이상 낡은 틀에 담을 수 없는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다.

3. 새로운 공동체: 경계를 허무는 복음

본문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께서 형성하시는 공동체의 성격이다. 그분께 나아오는 무리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곳에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배경,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공동체가 기존의 구분과 장벽을 허무는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혈통, 전통, 사회적 위치, 문화적 차이,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

[2] **갈릴리(Galilee)**: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주로 이루어진 곳이며,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고향이다.
유대(Judea):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 이스라엘의 정치적·종교적 중심지이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이 지역에 속한다.
예루살렘(Jerusalem): 유대 산지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성도(聖都).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이루어진 신앙의 핵심지이다.
이두매(Idumea): 유대 남쪽 접경 지대로, 구약의 '에돔' 지역을 일컫는다. 헤롯 대왕의 출신지로도 알려져 있다.
요단 강 건너편(Perea): 요단 강 동쪽 지역(베레아)을 의미한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예수님께서 자주 지나셨던 통로 역할을 했다.
두로와 시돈(Tyre and Sidon): 갈릴리 북서쪽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들. 이방 지역, 이곳에서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경쟁과 분열이 아니라, 화평과 회복, 그리고 하나 됨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교회가 이러한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된다. **우리는 여전히 벽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세우며 서로를 나누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자기 주장과 대립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낮아짐을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할것이다.

§ 나는 지금 열매 없는 논쟁과 관계에 붙들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나와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경계를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이루시는 공동체처럼, 그들을 품고 하나 됨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와 나는 '벽을 허무는 사람'인가, 아니면 '벽을 세우는 사람'인가?
내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가, 아니면 나누고 갈라놓고 있는가?

| 본론: 본문 주해2

Mark 3:9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Mark 3:10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Mark 3: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Mark 3:12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1. 작은 배: 방해 속에서도 지속되는 말씀 사역

9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명하신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10절에서 설명되는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를 만지기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를 만지면 낫는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로 인해 무리들은 질서를 잃은 채 예수께 밀려들기 시작한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혼잡을 넘어, 심각한 혼란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 이에 예수께서는 단순히 상황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역을 지속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신다. 그것이 바로 '작은 배'이다.

이 배는 이후 4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데, 예수께서는 배 위에 올라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는 해변에 앉아 그 말씀을 듣게 된다. 이 장면에서 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무리와 예수 사이를 구분하며 말씀을 집중하게 하는 **일종의 강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이 작은 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말씀 사역을 지키고 지속하기 위한 지혜로운 준비였다.

2. 무리의 한계: 필요 중심 신앙이 만드는 무질서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 모여든 무리들의 '동기'이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 특히 병 고침을 해결받기 위해 나아왔다.** 물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조급함과 자기중심적 열망이 결국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형성되고는 있으나, 그 공동체는 아직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라, **필요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성숙한 집단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준다.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찾고, 간절히 나아온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필요'에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은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3. 귀신들의 고백과 침묵 명령: 왜곡된 증언의 거부

11-12절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고백은 내용만 보면 정확한 신앙고백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고백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순종과 변화가 없는 고백이라는 점이다.** 귀신들은 예수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분께 복종하거나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고백은 진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참된 신앙고백이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으신다.

주님은 당신의 정체가 왜곡된 방식, 무질서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특히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로 오해할 가능성이 컸기에, 이들의 외침이 잘못된 기대와 왜곡된 메시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는 방식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주님은 소란과 왜곡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이 아닌, 제자들의 삶과 순종,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참된 계시를 원하신다.

4. 혼돈 속에서 세워지는 새 이스라엘

주님 주변의 현장은 한마디로 무질서와 혼란의 현장이다. 첫째, 지난 시간 살폈듯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예수를 해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지만, 아직 미숙한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혼잡을 만들어낸다. 셋째, **더러운 영들**마저 소란스럽게 외치며 진리를 왜곡하고 훼방하는 교묘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예수 주변의 현실은 질서가 아닌 혼돈, 안정이 아닌 총체적 난국과 같은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혼돈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장면은 창세

기의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위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혼돈을 잠잠케 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며 새 창조를 이루셨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께서도 혼란스러운 현실 한가운데서 말씀으로 무질서를 잠재우시며,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신다. 특히 이 장면이 바다 위에서 펼쳐진다는 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과 불안정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다음 본문에서 나타나는 **열두 제자의 부르심**이다. 이 열두 제자는 단순한 제자 집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새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초로 세워지는 존재들이다. 결국 오늘 본문은 혼돈과 방해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시며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삶을 지키기 위해 '작은 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혼란과 방해 속에서도 말씀 중심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준비가 내 삶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문제 해결과 필요를 위한 것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드러낼 때, 바른 방식과 태도를 지키고 있는가?
혹시 소란과 주장, 왜곡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시대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상황에 휘둘리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결론: 혼돈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부르심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의 완악함과 적대 속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 오히려 회당을 떠나 바다로 나아가시며, 열매 없는 논쟁의 자리를 벗어나 **준비된 무리들을 향해**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와 이방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이루셨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특정 집단이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모든 장벽을 넘어 확장되는 생명의 역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현장은 결코 이상적이거나 안정된 모습이 아니었다. 병 고침을 위해 몰려든 무리들의 무질서, 예수를 죽이려는 종교지도자들의 음모,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들의 외침까지 모든 것이 뒤엉킨 혼돈의 현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혼란 속에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혜로 **작은 배**를 준비하시며 말씀 사역을 지켜내시고, 질서를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혼돈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완악함과 무질서, 그리고 악한 방해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주님은 오늘도 혼란스러운 현실 한가운데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며,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향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열매 없는 논쟁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주님처럼 방향을 전환하여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필요만을 따라 움직이는 미성숙한 무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제자로 서 있는가? 우리는 벽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처럼 경계를 허물고 하나 됨을 이루는 사람인가?
또한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소란과 주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한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가? 주님은 귀신들의 소란스러운 외침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증언을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혼돈 속에서 시작되고, **그 혼돈을 뚫고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무질서한 무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제자로 서서,** 이 시대 가운데 새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논쟁이 아니라 복음을, 소란이 아니라 순종을, 주장과 높아짐이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을 선택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참된 샬롬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말씀에 붙들린 참된 제자로 살아가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Quiz

1.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심”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패로 인한 도피　② 여행을 위한 이동　③ 전략적 전환　④ 휴식을 위한 선택

2. 예수님의 공동체 특징으로 틀린 것은?

① 혈통 중심　②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　③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　④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됨

3. 본문의 맥락에서 “작은 배”의 역할은 무엇인가?

① 이동 수단　② 어부의 도구　③ 말씀 사역을 위한 강단 역할　④ 군중 통제 수단

4. 마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 사역과 비교할 때, 본문 3장에서 드러나는 예수님 사역의 특징은?

5. 본문에서 예수께 나아온 ‘무리’의 주된 동기는 무엇인가?

6.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7. 교재에서 설명하는 ‘바다’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며, 예수님은 그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8. 혼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설명하시오.

9. 본문에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 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10.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